

만주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金九鎭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서론

만주사만큼 한·중·일 3국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인식이 달랐던 분야가 없다. 그 원인은 淸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1644년 모두 中原으로 이주하고, 만주 땅은 空地로 남게 되면서부터 3국이 그 영유권을 둘러싸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왔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여 1932년 <滿洲帝國>을 세우고 1945년까지 만주를 지배하였다. 일본의 식민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은 만주의 식민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주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여 이른바 <滿鮮史觀>을 수립하고 만주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사를 그 주변사로 보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학계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中日전쟁이 끝난 뒤에 1945년 만주가 중국의 <東北 3省>으로 다시 편입되자, 만주사는 그 독자적인 영역을 잃어버리고, 다시 중국학자들에 의하여 중국의 <東北史>로 취급받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만주사를 <동북사>라고 일컫는 것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만주를 동북 지방으로 취급하여, 중국의 <地方史>로 보려고 하는 발상이다. 이것은 만주사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국주의 입장이다. 지금 중국학자들은 만주에서 일찍이 발달한 고구려와 발해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인이 만주사를 독자적인 역사로서 보지 않고 중국사의 邊疆史로 보려고 하는 태도도 일본인의 <滿鮮史觀>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주에는 일찍이 朝鮮族·濊貊族 계통의 夫餘·高句麗와 高句麗 유민의 渤海가 건국 발전하였고,¹⁾ 肅慎·挈婁·勿吉·靺鞨 계통의 女眞族의 金나라와 滿洲族의 淸나라가 건국하여 중국으로 진출하였다. 지금 만주지역에 고구려·발해의 유민이나 여진족의 후에 만주족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면, 만주사는 당연히 조선족과 만주족의 독자적인 역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고구려는 남하하였고,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워서 入關하였기 때문에 19세기 중엽 <만주 封禁令>이 해제된 이후에 중국의 山東인이 만주로 대거 이주하였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살던 조선인이 間島로 많이 옮겨갔다. 그 결과 만주에는 중국 한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조선족과 만주족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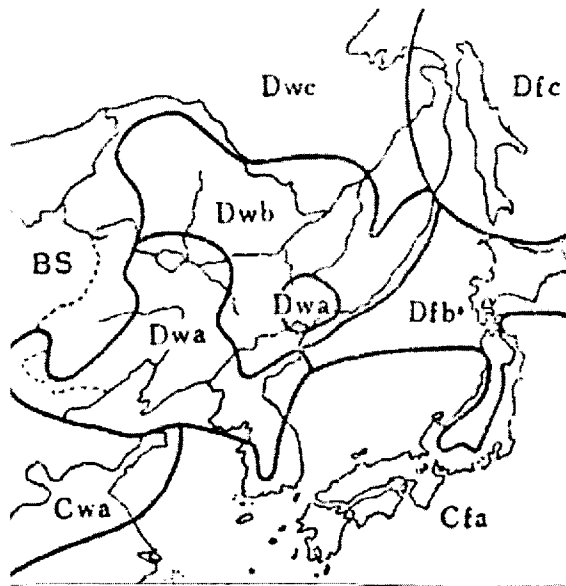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23일

- 1) <新唐書>에서는 고구려 유민 大祚榮이 발해를 세웠다고 하였으나, <舊唐書>에서는 渤海靺鞨이 발해를 세웠다고 하였는데, 중국인은 일찍부터 渤海는 靺鞨族이 세운 왕조라고 주장하였다.
- 2)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만주의 黑龍江省·吉林省·遼寧省에 거주하는 인구는 1억 6백 55만 명인데, 대부분 山東 출신의 한족들이다. 만주족은 중국 전역에 옛날 만주 8旗兵의 旗地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전체 인구가 9백 80만 명 정도로서 55개 소수 민족 중에서 제 2위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 약 2백 70만 명이 만주에 살고 있으며, 만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遼寧省 일대이다. 조선족은 1백 70만 명 정도가 만주에 살고 있는데, 吉林省의 延邊 朝鮮族 自治州에 가장 많다. 조선족은 중국 전체에 1백 90만 명이 살고 있으며, 55개 소수 민족 중에서 제 13위에 해당된다. 만주에 살고 있는 만주족은 전체의

II. 만주의 자연환경과 생활양식

만주의 자연환경과 기후를 보면, 한반도와 중국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므로 마르또느(Martonne)는 만주의 특이한 지리환경을 <만주형 기후>라는 氣候區라고 설정한 바 있다. 쾨펜(Koepfen)은 만주의 자연환경을 3개의 기후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쾨펜 지도>에 의하면, <냉온대 亞濕潤 기후>(Dwa), <냉온대 습윤 기후> (Dwb), <한온대 濕潤 기후>(Dwc)의 만주 기후로 나누고 있다.³⁾

Koepfen은 기후구분을 기호로써 표시하였는데, 만주와 흑룡강 북쪽의 Dw- 지대는 겨울철에 비가 적게 오는 한냉대 기후(Wintertrockenkalt Klimate)이고, 몽고와 東蒙古 지역의 BS는 스텝 지대의 건조한 기후(Steppen Klimate)이다. <쾨펜 지도>의 -a는 여름이 덥고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22°C 이상을 말하며, -b는 여름이 선선하고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22°C 이하이고 10°C 이상인 달이 1년 중에



<쾨펜의 지도>

4개월 정도 이상을 말하며, -c는 여름이 짧고 서늘하며,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22°C 이하이고 10°C 이상인 달이 1년 중에 4개월 정도 이하를 말한다.

- ① <냉온대 亞濕潤 기후>(Dwa)는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이 월 평균 섭씨 영하 3도 이하이고, 가장 높은 달이 월 평균 22°C 이상이며, 강우량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농경이 가능한 지역이다. 고구려가 처음 발생한 압록강 지류 修佳江 일대와 발해가 건국한 두만강 하류 海蘭江 유역, 부여가 발생한 松花江 상류, 고조선이 차지한 遼河의 遼東·遼西 지방이 모두 Dwa 기후지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만주에서 농경이 가능한 지역에 고대 국가가 건국하고, 그 중심지(수도)가 자리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후 지대야말로 일찍이 조선족 계통의 부여·고구려·발해 민족이 활동한 역사 무대였다.

25%이고, 조선족은 1.6%이다.

3) Koepfen W. *Die Klimate der Erde* (Berlin und Leipzig, 1923) pp. 112-131.

遼代의 熟女眞과 淸나라를 세운 明代의 <建州女眞>은 바로 이 지역에서 농경 생활을 하였다.

- ② <냉온대 습윤 기후>(Dwb)는 1년 중에서 겨우 4개월 정도가 10°C 이상이고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아서 침엽수가 자라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 기후 지대는 울창한 산림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타이가(taiga) 지대>라고 부른다. <타이가(taiga) 지대>는 만주 동부의 長白山맥과 북부의 內興安嶺 산맥 지대로 나뉘지는데, 그 사이에 송화강이 흐른다. 이 기후 지역이 일찌기 肅慎·挹婁족 계통의 勿吉·靺鞨女眞族(만주족)이 수렵·어로 생활을 하면서 살던 무대였다. 여진족의 金나라와 만주족의 淸(後金)나라는 처음에 <냉온대 습윤 기후> (Dwb)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냉온대 亞濕潤 기후>(Dwa)로 남하하여, 한반도의 우리 민족과 한번 크게 충돌하고 나서, 그 방향을 중국으로 돌려서 西進하여 중국을 침입하여, 대제국을 세웠던 것이다. 遼代의 生女眞과 明代의 <海西女眞>이 바로 이 지역에서 수렵·어로 생활을 하였다.
- ③ <한온대 濕潤 기후>(Dwc)는 기온이 연평균 0°C 이하로 내려가고, 1년 중에서 3개월 정도가 겨우 10°C 이상이므로 여름이 거의 없으므로 사람이 살기 힘든 툰드라 지대이다. 만주의 최북단의 外興安嶺 지대와 흑룡강 북쪽 불모 지대인데, <북방 퉁구스족>인 에벤키(Evenky)족이 순록을 사육하면서 생활한다. 明代의 <野人女眞>이 바로 이 지역에서 순록을 사육하면서 살았다.
- ④ <냉온대 반건조 초원지대>(BS)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풀만 자라는 초원 지대이다. 外興安嶺 산맥을 중심으로 그 동쪽의 만주의 동몽고 지역과 그 서쪽의 내몽고·외몽고 지방인데, 만주의 퉁구스 계통과는 다른 몽고족이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만주의 자연환경에 따른 생활양식을 살펴보면, 평야지대의 <농경 생활권>과 산림지대의 <수렵·어로 생활권>으로 나누어지는데, 동몽고 초원지대의 <유목 생활권>을 포함시키면, 만주의 생활양식은 3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몽고는 초원지대의 <유목 생활권>의 유형만을 가지고 있으나, 만주는 3유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주사의 전개 과정은 복잡하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만주의 <농경 생활권>은 Dwa 기후지대이다. 대체로 만주는 겨울이 길고 추우며, 여름이 지극히 짧고 덥다.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1년 중에서 평균 155일 안팎이므로, 대체로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나 만주에서 농업이 가능한 지역은 Dwa 기후지대인데,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약 5-6개월 정도이다. 온도가 대체로 섭씨 15도 이상인 날은 겨우 6-8월의 3개월뿐이고, 9월 말 이후에는 기후가 급격히 떨어져서 서리가 일찍 내린다. 만주의 농작물은 주로 추위에 강하고 일조량이 적어도 수확이 가능한 콩고량조옥수수 등을 주로 재배한다. 예로부터 조선족 계통의 부여·고구려·발해가 Dwa 기후지대에서 농경 생활을 하였는데, 나중에 중국의 한족이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여 밀·보리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만주의 농사는 대부분 밭농사를 위주로 하였다. 19세기 말엽에 間島 지방에 옮겨간 우리 민족이 비로소 논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만주의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늘날 만주에서 북위 40도 이상은 벼농사가 불가능하다.

만주의 <수렵·어로 생활권>은 Dwb 기후지대이다. 건조하고 한랭한 기후이므로, 활엽수는 자라지 못하고 소나무·전나무 등의 침엽수가 울창하게 자란다. 이처럼 산림지대를 이루고 있어서 온갖 야생 동물이 무성한 산림 속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가(taiga)의 산림지대에 살던 肅慎·挹婁 계통의 勿吉靺鞨女眞族은 사슴·노루·여우·담비 등의 짐승들을 사냥하는 수렵생활에 종사하였다. 또 그들은 송화강·흑룡강에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어로 생활도 병행하였다. 肅慎·挹婁의 <음루>라는 명칭도 사슴을 뜻

하는 만주어 'ilu'에서 나온 것인데, 당시 <타이가(taiga) 지대>에서 사슴을 사냥하던 종족을 일컫던 말이다.

산림이 우거진 <타이가(taiga) 지대>를 만주어로서 weji(udi)라고 부르는데, 고대의 沃沮, 明代의 兀狄哈, 清代의 '窩集'은 이것을 한자로 音譯한 것이다.⁴⁾ 明代에 여진족 중에서 '산림 지대에서 살던 사람'을 Udike(兀狄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weji(산림) + ke(사람)>를 음역한 것이다. 여진족에 관한 사료가 가장 풍부한 《조선왕조실록》에서, 여진족을 오랑캐(兀良哈)와 우디케(兀狄哈)의 두 종족으로 나누어, <수렵 우디케>를 <농경 오랑캐>의 대칭되는 말로 사용하였다. 또 거란족의 遼代에도 여진족을 生女眞과 熟女眞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수렵어로 생활권>의 여진족을, 후자는 <농경 생활권>의 여진족을 일컫었다. 이로써 보면, 당시 만주의 여진족은 그 생활양식에 따라서 그 종족을 구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에서 발생한 고대의 부여·고구려의 濊貊族은 遼代의 生女眞·熟女眞이나 明代의 오랑캐(兀良哈)·우디케(兀狄哈)처럼 생활양식에 따라서 濊貊族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유추된다. 말하자면, 濊貊族은 종족의 혈통은 같지만, 그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왜냐하면, 초기에 부여족은 송화강의 상류 지역에서 농경생활에 들어갔으나, 고구려족은 만주의 내지 산악 지대에서 수렵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⁵⁾

만주의 <유목 생활권>은 동몽고의 BS 기후지대이다. 강우량이 2~300mm 이하의 건조한 스텝 지역인데, 초원지대를 이루고 있어서 동몽고족(東胡族)이 유목생활을 하고 있다. 동몽고족은 만주족과 몽고족의 혼혈 종족인데, 오늘날 소론(Solon)족과 다후르(Dahur)족이 이에 해당된다. 동몽고는 지형적으로 보면, 만주에 속하지만, 그 기후를 보면 오히려 몽고에 가깝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만주와 몽고는 동몽고족을 통하여 하나의 혈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이나 누르하치의 만주 제국을 건설할 때에 먼저 동몽고를 항복시켜서 자기 민족으로 통합한 다음에, 상대 민족을 정벌하여 그 기반 세력으로 삼았던 것이다. 몽고족은 양과 말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으나, 내지 만주족은 돼지를 방목하지만, 돼지는 이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동몽고를 제외한 만주 내지에 <유목 생활권>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明代의 만주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은 그 거주지역과 생활양식에 따라 구분하면, (I) 海西여진의 <수렵어로 생활권>, (II) 동몽고족의 <유목생활권>, (III) 建州여진의 <농경 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생활권이 시대에 따라서 그 생활양식이 변하였는데, <수렵·어로생활권>에서 <유목 생활권>으로, 또 <수렵·어로 생활권>에서 <농경 생활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민족 이동과 생산 양식의 변화였다.

明代에 여진족의 사회경제적 발전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만주의 여진족은 대개 (I)→(III)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동몽고족은 (I)→(II)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로써 보면, 고대 만주 지역에 있었던 부여·고구려·발해도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수렵·어로 생활, 농경생활, 유목생활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농경생활로 발전하였을 것이라 믿어진다. 부여·고구려·발해의 초기 사회는 (I)의 <수렵·어로 생활권>에서 시작하였으나, 그 후기 사회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그 생활양식이 변화하므로써, (III)의 농경생활로 바뀌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므로, 적어도 고구려·발해의 사회는 그 시기를 엄밀히 구분해서 그 사회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窩集은 <타이가(taiga) 지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만주의 산림이 우거진 산악 중에서 窩集이란 말이 붙은 지명이 많다. 17세기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통일할 적에 동부 長白山脈 일대에 여진의 "東海 窩集部"가 있었는데, 산림 지대에서 수렵·어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권을 이루었다.

5) 濊族은 '강가에서 농경하던 종족'을, 貊族은 '숲속에서 짐승을 사냥하던 종족'을 일컫던 명칭이라고 추측된다.

부여족은 <농경생활권>을 지향하여 더욱 남하를 계속하여, 한반도의 중부로 들어와서 백제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고구려족은 만주에 거주할 적에는 小水貊과 大水貊으로 나누어 <수렵어로 생활권>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고구려족도 <농경생활권>을 지향하여, 1차적으로 압록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丸都城과 國內城 지역에서 농경생활을 시작하고, 2차적으로 427년에 대동강 유역의 平壤으로 천도하여, 발달된 농경생활로 진입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부여족과 고구려족의 남하 현상은 (I)의 <수렵·어로 생활권>에서 (III)의 <농경생활권>으로 점차 이행하는 과정에 나타난 역사적 현상이다.

III. 씨족 중심의 만주 사회 조직

러시아의 S. M. Shirokogoroff가 1917~20년에 걸쳐 만주를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주족의 사회는 “氏族을 뜻하는 mukun”과 “姓을 나타내는 hala”라는 단위로써 구성된 사회라고 하였다.⁶⁾ 원래 mukun과 hala는 모두 씨족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씨족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작은 단위의 씨족이 보다 큰 단위의 부족으로 커지자, mukun이 씨족을 일컫는 말로 되고, hala는 부족의 성을 가리키는 말로 되었던 것이다.⁷⁾ 이것은 만주에서 발생한 씨족(clan)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족·종족으로 성장 발전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씨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조직은 만주족과 몽고족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형상인데, 만주족의 hala와 mukun이 몽고족의 omok(일명 oboq)와 jasun과 같다. 만주족의 청나라 초기의 정사기록인 《滿洲實錄》·《滿文老檔》을 보더라도, 만주족의 전신인 여진족의 사회구성도 이러한 mukun과 hala를 단위로 조직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 이로써 본다면, 고대의 부여·고구려의 사회 조직도 이와 같은 씨족(clan) 제도에 바탕을 두었다고 추측된다.

고구려의 <廣開土大王 碑文>을 보면, 守墓人 烟戶 330家를 차출하는 대목에서, “賣勾余民에서 國烟 2家, 看烟 3家를, 東海 장사치[賈]에게서, 國烟 3家, 看烟 5家를 차출한다.”라고 하였는데,⁹⁾ 비문의 賣勾余民에서 賣勾는 “muku(mukun)”를 가리키는 말이며, 余民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長壽王이 廣開土大王의 비문을 새운 목적은 무덤을 지키는 守墓人의 烟戶를 새로 정복한 지역에서 330家를 골고루 차출하여 무덤을 지키도록 하라는 父王의 遺命을 받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長壽王은 총 烟戶 330家를 차출하면서, 구 통치 지역에서 110家를 차출하였는데, 가장 먼저 賣勾余民의 烟戶 5家(國烟 2가 + 看烟 3가)를 차출하고 그 다음에 東海의 속국 沃沮의 商賈(장사치)에게서 烟戶 8家(國烟 3가 + 看烟 5家)를 차출하였다. 왜냐하면, 新來 정복민은 王陵에 供上하는 제사 禮法을 잘 알지 못할까봐 염려해서였다. 비문의 <賣勾余民>이란, 광개토대왕의 출신 씨족(mukun)을 말하는 것인데, 고구려의 5부족 중에서 王系를 배출하는 桂婁部를 뜻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또 발해도 고구려의 유민이 말갈족과 연합하여 <族制 國家>를 세웠기 때문에 혈족의 계통에 따른 mukun과 hala의 씨족(clan)을 중요시하였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연구는 사회 조직을 씨족 단위로 설정하여 구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그 국가 구성과 경제 체제·군사의

6) S. M. Shirokogoroff, *Social Organization of the Manchus-A Study of the Manchus Clan Organization*-(Shanghai, 1924) P. 16.

7) mukun은 우리말의 <뫼음>과 같은 말이고, hala는 우리말의 <갈래>와 같은 말이다. 모두 씨족과 부족의 핏줄을 나타내는 말이다.

8) 《滿洲實錄》·《滿文老檔》 등의 만주어로서 쓰여진 사료를 보면, 部·部族 또는 部落을 hala, aiman, gurun이라고 하는데, hala와 aiman은 혈연관계를 나타내는데 비하여, gurun은 지연관계를 나타낸다.

9) <廣開土大王 碑文> 제3면 제7행. “守墓人烟戶, 賣勾余民, 國烟二看烟三, 東海賈, 國烟三看烟五”

조직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씨족을 단위로 사회 조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사 조직과 경제 활동 등이 모두 씨족 단위로 이루어졌다. 군사 조직은 씨족을 최하의 단위로 하여 조직되고, 그 위에 계통별로 부족, 또는 종족 단위의 큰 부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른바 씨족군사이다. 그 지휘 계통은 씨족부족의 대소 추장이 맡았던 것이다. 여진족의 金나라 <猛安謀克>의 군사제도와 만주족의 淸나라 <八旗 제도>가 모두 이와 같은 씨족 단위로 구성된 군사조직이었다. 만주족뿐만 아니라, 몽고족과 거란족 등의 북방 기마민족은 모두 씨족 단위로 군사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씨족단위로 군사가 조직되면, 그 혈연관계에 의하여, 가까운 친척들이 뭉쳐서 싸우기 때문에 농경사회의 군사조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용맹스러웠다. 왜냐하면, 부자나 형제들의 친척이 모여서 하나의 군사 단위를 구성하였을 때에, 아버지 대신 아들이, 형 대신 아우가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씨족 단위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혈족끼리 모여서 마을을 만들고 공동으로 경제 생산을 담당하는 체제이다. 수렵생활권에서는 사냥을 하는 캠프를, 농경생활권에서는 농사를 짓는 마을을 씨족단위로 구성하였다. 여진족의 경우를 보면, 수렵 우디케는 사냥을 할 때에, 산속의 사냥터에다 사냥 캠프를 설치할 때에 가까운 혈족끼리 텐트를 나란히 쳐서 마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tatan’이라고 불렀으며, 농경 오랑캐는 農幕과 같은 초가를 짓고 가까운 혈족끼리 모여서 작은 촌락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gasan’이라고 일컬었다.

tatan은 수렵생활에서 이동하기 편리한 일종의 캠프를 말한다. 이러한 캠프를 오로촌(Orochan)인들은 ‘urilen’이라고 부르고, 중국인들은 ‘仙人柱’라고 한다. 그런데 수렵 우디케의 사회에서는 tatan이 캠프를 뜻하는 宿營地, 또는 野營地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수렵하는 사람들의 부락을 뜻하게 되었다.

수렵 우디케의 사회에서 tatan의 기초단위가 바로 mukun과 hala였다. 왜냐하면 hala(姓)- mukun(氏族)- tatan로서 수렵 우디케의 사회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mukun은 3~5개의 tatan으로 구성되고, 또 하나의 tatan은 몇 개의 계족(系族: lineage)으로써 형성되는데, 이것을 ulilen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만주족의 사회는 가까운 혈족으로 구성된 씨족 사회였다. 또 몇 개의 tatan이 연합하여 정치적 세력을 가지면 하나의 aiman이 된다. 여진의 aiman은 몽고족의 aimak과 같은 말로서, 수렵 우디케 사회에서 정치적 결집체인 部, 또는 部落을 뜻한다.

mukun의 支派인 ulilen은 本宗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땅에 각각 떨어져서 tatan을 세우는데, 대개 하나의 mukun의 일정한 지역 안에 포진할 적에 가까운 계족의 ulilen 단위로서 本宗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支派들이 강을 따라서 강의 위나 아래에, 또는 산의 앞과 뒤에 각각 일정하게 방향을 정하였다. 本宗은 중심에 자리잡고, 각 支派는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캠프를 쳤는데, 그 방향을 나타내는 빛깔을 그 지파의 명칭으로 삼았다. 동쪽은 청색(남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자색(적색), 북쪽은 흑색, 그리고 중앙은 황색인데, 그 이름을 색깔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색깔을 표시하는 깃발을 각각 세웠던 것이다.

Shirokogoroff가 흑룡강 상류에 있던 만주족의 42씨족을 조사한 것을 보면, 그 지파가 이와 같은 방위를 나타내는 색깔을 명칭으로 삼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¹⁰⁾ 또 《八旗滿洲 氏族通譜》에 나오는 만주족 642姓은 모두 支派를 가지고 있는데, 그 支派의 명칭이 이러한 방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¹¹⁾ 또 <滿洲 八旗>도 이와 같은 씨족 군사였기 때문에 그 깃발을 각각 그 방위를 나타내는 색깔로서 표시

10) S. M. Shirokogoroff, *Social Organization of the Manchus-A Study of the Manchus Clan Organization*-(Shanghai, 1924) pp. 20-28.]

11) 郭爾泰 《八旗滿洲氏族通譜》 80卷

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직후, 宣祖의 밀명을 받고 누르하치의 초기 본거지에 방문하였던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기록된 군사의 깃발을 보면,¹²⁾ 누르하치의 군사는 처음에 씨족의 방위를 나타내는 청색·황색·적색·백색·흑색으로서 표시하여, 5旗를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누르하치가 <만주 팔기>를 확대하여 개편할 때에 북쪽을 나타내던 黑旗를 없애고, 黃旗·白旗·紅旗·藍旗의 4旗를 기본으로 하여, 正·鑲의 2종류로 나누어 8旗로 만들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중심 세력인 5部를 보면, 그 방위에 따라서 그 부족의 명칭을 표시하였다. 내부를 일명 黃部라 하는데 즉 桂婁部이고, 북부를 일명 後部라 하는데 즉, 絶奴部이고, 동부를 일명 左部라고 하는데, 즉 順奴部이고, 남부를 일명 前部라고 하는데 즉 灌奴部라고 하고, 서부를 일명 右部라 하는데 일명 洮奴部라고 하였다. 처음에 소노부가 전 씨족을 통솔하는 왕을 내다가, 뒤에 太祖王 때에 이르러, 계루부에서 이를 대신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5부족은 씨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고구려의 5부족은 씨족의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支派로서 볼 수 있으나, 支派도 시간이 지나면 그 규모와 조직이 씨족부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경 오랑캐가 농경생활을 하면서 정착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촌락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정착 촌락을 gasan이라고 불렀다. 하나의 gasan은 몇 개의 계족(lineage)이 모여서 촌락을 이루었다. 농경 오랑캐의 사회에서 mukun과 hala의 기초 단위가 바로 gasan이었기 때문에, hala(姓)- mukun(氏族)- gasan으로서 농경 오랑캐의 사회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오랑캐나 오도리족의 gasan은 모두 동족 부락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系族을 만주어로서 uksun이라고 부르는데, uksun은 여진의 촌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었다. 농경 오랑캐 사회에서는 이것을 falga라고 하고, 수렵 우디케 사회에서는 이것을 uilen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8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을 뜻한다. <滿洲 八旗>의 기원도 tatan의 urilen과 gasan의 falga에서 나왔는데, 만주 八旗兵의 최하 단위 조직인 niru는 바로 tatan의 urilen의 falga였다.

15세기 조선의 《端宗實錄》에 나오는 여진족의 부락을 보면, 여진족의 오랑캐 오도리족의 부락(gasan)을 보면 대개 10~20여 호가 보통이고, 30여 호 이상은 드물었다.¹³⁾ 16세기 말기의 《制勝方略》을 보면 50호, 또는 1백 호 이상의 오랑캐 부락[藩胡]도 등장하고, 17세기에 이르러 雜姓이 섞인 <異姓 部落>도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¹⁴⁾

村落在 발전하면, 상하의 조직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추장(-da)은 촌락을 지배하는 상하관계를 통하여 세력을 신장하였다. 특히 부락끼리 通婚 관계에 의해서 결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정치세력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씨족 연합의 성격을 가진 “族制 國家(Ethnical State)”가 바로 ‘gurun(國)’이다. gurun이라는 만주어는 원래 나라를 뜻하는 말이다. 고대의 고구려에서 나타나는 guru는 바로 이러한 gurun을 뜻하며, 또 고구려라는 국호도 ‘kau+guru(n)’으로서 “고씨의 나라”로 해석된다.

또 gurun이라는 말은 kol, 또는 hol과도 관계가 있는데, kol(hol)은 만주어로 성을 나타내는 gurun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말로는 ‘고을’이다. 17세기 명나라 말기에 오랑캐와 오도리족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 이미 여러 개의 golo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gol→golo→gurun으로 발전하는 중간 형태이다. 《滿洲實錄》에서는 이것을 ‘로(路)’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우리의 ‘고

12) 申忠一, 《建州紀程圖記》 券1.

13) <端宗實錄> 券그 13, 端宗 3年 3月 己巳條.

14) 金宗瑞, <制勝方略>

을'이라는 말이 이에 가장 알맞은 표현이다. 《滿文老檔》에 보면, 명나라 말기에 만주의 여러 지역에서 *gurun*이라는 여진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gurun*은 씨족끼리 통혼 관계에 의해서 씨족 연합이 이루어져 정치세력을 형성하는데, 조선 초기에 등장하는 <7姓 우디케>나, 고려 때에 나타나는 <東女眞 30姓>도 이러한 정치세력이다. 또 씨족 사이에도 상하 관계가 형성되고, 전쟁을 통하여 혈통이 다른 씨족을 지배하게 되었다. *golo*의 대추장 (*amban*)은 소추장(-*da*)을 지배하고, *golo*의 *amban*은 그 상위의 *gurun*의 왕(*beile*)에게 복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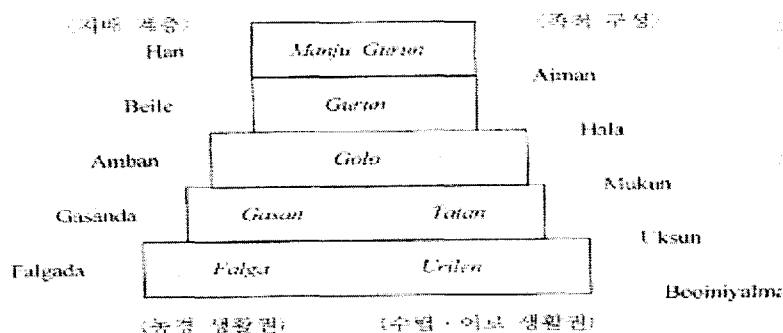
또 대소 추장은 강제로 管下民戶를 두어서 군역과 조세를 부담시키고 노역을 사역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추장과 管下民戶(下戶) 사이는 반드시 혈연관계가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고구려에서 나타나는 下戶도 바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같다. 淸나라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반 民戶를 *irgen*이라고 불렀다. 누르하치가 주변의 *gurun*의 여러 *beile*(왕)를 차례로 정복하고 마침내 'Manju Gurun'을 완성하자,¹⁵⁾ 그는 여러 *gurun*의 *beile*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han(kan)*으로 등극하였다. 이것이 바로 1616년 만주에서 後金이 건국하는 과정이다.

만주에서 최후에 성립된 왕조가 後金の 淸나라이다. 씨족을 기초로 하여 <族制 군대>가 조직되었다. 또 씨족과 姓을 기초로 하는 마을 - *tatan*과 *gasan*이 형성되고, 그 마을을 바탕으로 하는 고을 - *golo*가 형성되고, 여러 고을이 연합하여 마침내 하나의 나라 - *gurun*을 형성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만주에서 국가가 출현하는 圖式이다. 만주에서 건국한 고구려와 발해도 이와 같이 씨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族制 국가>이다, 그러므로 17세기 'Manju Gurun'(만주국)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고구려 발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국가를 형성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또 군사조직은 물론이고, 그 사회구조와 지방제도가 씨족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형성되는지를 아울러 유추할 수 있다.

IV. 만주사의 샤머니즘의 원형

원래 <샤먼(Shaman)>이라는 말은 만주몽고 지방에서 무당을 가리키는 샤만(薩滿)에서 나온 말이다. 인류학자들은 만몽의 샤먼에서 샤머니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¹⁶⁾ 샤머니즘은 만몽 지역에서 크게 발

〈표 1〉 만주의 “족제(族制) 국가”의 성립 과정



15) 《淸文總彙》 卷5.

16) S. M. Shirokogoroff. *Psychomental Complex of the Tungus*, (London, 1935) p. 268.

전해왔으며, 오늘날까지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¹⁷⁾ 만주의 역사에서 샤머니즘을 알지 못하면 그 정신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만몽의 샤머니즘은 만주의 역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天황을 중심으로 하는 神道觀이야말로 바로 샤머니즘의 구현이고, 우리 나라 한반도의 무당도 바로 전형적인 샤먼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흑룡강 유역에 살고 있는 북방 퉁구스 계통의 에벤키(Evenky)족, 특히 골디(Gold)족과 오로촌(Orachon)족 등의 신앙이 모두 이에 속한다.

S. M. Shirokogoroff는 샤머니즘을 만주와 한반도·일본 등지에 무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원시 신앙으로 국한시키고 있으나, M. Eliade는 샤머니즘 범위를 확대시켜서, 중국의 민간 신앙인 道教를 샤머니즘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토속 원시신앙까지 샤머니즘의 범주에 넣고 있다. 만주족의 샤머니즘에 대해서는 S. M. Shirokogoroff가 현지 조사를 하여 《퉁구스족의 정신적 콤플렉스》라는 책을 저술하였다.¹⁸⁾

또 중국의 凌純聲도 《松花江 하류의 골디족》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흑룡강 유역에 살고 있는 골디족의 샤머니즘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 소개하였다.¹⁹⁾ 샤머니즘은 만주족의 정신 세계만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여러 가지 방면을 지배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만주족과 몽고족이 전쟁에서 그토록 용맹하였던 까닭도 이러한 샤머니즘의 死生觀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다음세상이 연결된다고 믿는 이른바 ‘샤머니즘’의 영혼 불멸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구려와 발해도 만주에 있었던 왕조이므로, 이러한 샤머니즘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죽음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통과 의례라고 믿었다. 죽음은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의 새로운 삶을 뜻한다고 확신하였다. 고구려의 乙支文德이 隋煬帝의 백만 대군을 물리치고 살수대첩을 거두었고, 또 淵蓋蘇文이 唐太宗의 군사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던 것도 고구려 사람들이 생사를 초월하는 샤머니즘의 용감성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몽고의 징기스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한 것이나, 만주의 누르하치가 중국을 석권한 것도 모두 샤머니즘을 믿는 북방 기마민족의 죽음을 초월하는 용맹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殉死와 殉葬이야말로 샤머니즘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滿洲實錄》을 보면, 누르하치가 죽자, 그를 모시던 황후와 많은 궁녀들이 스스로 殉死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淸나라의 사료에서 殉死를 행한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데, 만주의 사회에서 18세기까지 殉死하는 풍습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보더라도 만주족이 얼마나 샤머니즘을 확고하게 믿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만주에 있었던 부여와 고구려와 발해에서도 이러한 殉死와 殉葬의 풍습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부여는,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수백 명의 사람을 殉葬하여 같이 묻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 고구려와 발해의 고분에서도 殉葬한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야말로 고구려인의 영혼관과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한 샤머니즘의 세계이다. 학을 탄 사만, 또는 天馬를 탄 死者, 또는 뱀을 거머쥔 장사 등이 고분 벽화에 나오는데, 이러한 인물과 동물들은 모두 만주의 샤머니즘을 나타낸다. 3층, 5층, 7층, 9층으로 이루어진 고구려 고분의 抹角藻井은 죽은 다음의 세계를 나타내는데, 고구려인의 우주관을 표현한 것이다. 천장의 각층마다 모서리에 뱀을 거머쥔 力士들이 死者의 관문 통과를 저지하고 있지만, 학봉황매 天馬 등을 탄 사만과 死者는 악마를 물리치고 저

17) Mirca Eliade, *Shamanism* (New York, 1964) pp. 67~109.

18) S. M. Shirokogoroff, *ibid.*

19) 凌純聲, 《松花江下游的 赫哲族》 上·中·下 (南京) 1934.

승으로 가는 것이다. 샤만이 死者를 안내하여, 地上界에서 天界로 올라가는데, 하늘과 땅을 오르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는 샤만뿐이다. 샤만이 死者를 안내하다가 난관에 부딪칠 때에 샤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학·봉황·독수리·天馬·용 등이다. 이러한 동물들을 <補助神靈>이라고 하는데, 만주어로서 Enduri라고 한다. 말하자면, 무당은 하늘과 인간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힘을 가진 사람이며, 그러므로 고구려나 발해의 고분벽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만주의 샤머니즘의 세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V. 맺음말

오늘날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종교가 외래문화에 의해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을 통해 들어온 유교·도교, 인도의 불교 등이 있으나, 모두 외래사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중국학자들은 유교·도교·불교 등을 내세워서 한국 문화도 그들 문화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東北工程>과 같이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사>라는 논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종교를 확립하려면, 우리의 민족정신과 문화가 <북방계(시베리아)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샤머니즘은 체계화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간 미신으로 박해를 받아왔다. 또 고도로 발달된 외래의 사상과 종교에 의해서 샤머니즘은 壓殺당하여, 그 원형적인 모습이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체계화되지 못한 샤머니즘을 우리 고유한 민족정신으로 체계화하고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발달한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 샤머니즘은 그 영향을 받고 그 이론에 의하여 발달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도교이다. 중국의 유교도 고대 중국인이 사유 개념 가운데 공자가 합리적인 것만 추출하여 유학을 만들었으므로 그 바탕은 중국인이 가졌던 샤머니즘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민족의 샤머니즘도 새로운 각도에서 구명하여, 우리민족의 얼을 되찾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유교와 도교, 인도의 불교를 우리의 고유한 사상과 종교로 내세울 수 없는 현실에서, 북방계 시베리아 문화의 샤머니즘을 우리의 사상과 종교로 내세워서 민족정신의 기원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일본인은 샤머니즘에서 神道觀을 만들어서 그 중심에 천황이 있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샤머니즘에 기초한 민족고유사상과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우리 민족은 민족고유정신의 저류를 이루고 있는 북방계의 문화적인 요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샤머니즘을 민족정신으로 재구현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발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진취적 기상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대륙적 기질의 고구려와 발해가 북방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독자적인 우리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대제국으로 발전시켰다. 고구려, 발해의 문화요소는 중국문화보다 북방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할 수 있다.

提 要

滿洲史研究的新方向摸索 摘要

金九鎮 (弘益大學校 歷史教育系 教授)

我們若要建立民族固有的思想與宗教，首先要提出來源于特有北方西伯利亞文化的高句麗與渤海之薩滿教。高句麗與渤海的薩滿教尚未確立其系統，並且理論也有許多不合理之處，被人們當做迷信而受迫害，由此至今沒有相傳其原形。爲了薩滿教當做我們固有的民族精神，一定要把它系統化而且理論化的工作。

在〈隨書〉與〈唐書〉等中國文獻有關〈東夷〉的記載，對於韓國與滿洲方面的紀錄，幾乎依靠傳聞寫下來的，即使中國正史的記錄也不可說完全正確，因爲此記錄不可否認站在中國人的中華思想之立場寫下來的。爲了克服文獻記載的限制與矛盾，運用考古學以及古墳壁畫的研究成果爲了系統的了解高句麗與渤海的宗教與思想，先了解薩滿教的信仰原理。因爲有關高句麗與渤海的歷史記載的確太少，只要據文獻記錄研究其歷史，就研究成果上受到限制。因此我個人認爲必須把薩滿教的基本原理考察高句麗與渤海的歷史，才能了解他們的思想與精神世界。

第 薩滿教脆弱宗教理論，容易接受外來高等宗教的理論，進一步與外來宗教結合，由此外來宗教成功地實現了土着化。佛教傳播於高句麗後，薩滿教與佛教思想相結合，在高句麗古墳壁畫上開始出現蓮花，雖然如此，把高句麗人的精神世界所控制的思想就是薩滿教，不是佛教。有的學者主張，在高句麗古墳壁畫所畫的四神圖，也是中國的道教與神仙思想的影響而來的。我個人認爲四神圖也受到北方的影響，高句麗人雖然在古墳壁畫上畫蓮花或四神圖，斷言佛教與道教支配當時人的思想，是過於單純的論理。高句麗古墳壁畫所畫的東西，只不過是薩滿教的世界上加佛教與道教的色彩而已。

察看考古遺跡，積石塚與穹窿形天井，是高句麗特有的。積石塚是從北方傳來的。穹窿形天井與西伯利亞的抹角藻井有密切的關係。在於衣食住方面，高句麗的北方文化仍然成爲現代韓國的文化。例如今天韓國婦女穿的民族服裝-裙子與襖-與男人所穿的-褲子與襖-的原形，出現於〈安岳三號墳〉的壁畫。韓國人吃烤肉的習俗，從高句麗人的貂炙風習而來的。高句麗文化中最爲獨特的就是火坑，火坑遺跡所發現的地區，在於韓半島與滿洲一帶，大約高句麗與渤海血統的我國民族住處所發見。由此看來，我們確定高句麗與渤海文化不是受中國的文化，而是受北方文化之影響。

觀觀觀觀看高句麗與渤海的遺物或遺跡，可知其文化的確接受到中國文化的影響。不過高句麗文化中所發現的中國文化之特性，比〈北方系文化〉的因素少。以高句麗與渤海所出土的遺跡之構造與內容來看，可知其文化所保有的〈北方文化〉之特性是來自西伯利亞文化的。〈北方系文化〉即西伯利亞(中央亞細亞)文化的影響。文化即由高處走向低處傳播之特性，闡明〈北方系文化〉之淵源即將研究的重要課題。不過其文化確定是經過西伯利亞(中央亞細亞)傳之滿洲與韓半島，因此高句麗與渤海文化的背景，是西伯利亞(Taiga)地區所發展的狩獵文化，因此其文化具有與中國文化不同的特色。